

韓國 古代 天文觀測所의 研究

박경규 · 이용삼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韓國史를 通해 볼 때, 三國時代 以後로 수많은 天文 現象을 觀測한 記錄이 史料로 남아 있고, 이러한 觀測은 觀象授時를 目的으로 하여 官職을 가진 上流層을 中心으로 이루어졌다. 現在 이와 같은 觀測 場所나 築造物이 一部 保存되어 있다. 古代에 天體觀測을 遂行한 곳에 對해 文獻을 蒐集하고 踏査하여, 天文 觀測臺로서의 地域的 特性和 周邊의 自然 條件 등을 調査하였다. 江華島 마니산 彗星壇은 古朝鮮 時代에 築造한 것으로 傳해지는데, 朝鮮時代에도 天變現象을 觀測했다는 記錄이 있다. 이 彗星壇의 方位를 決定하고, 慶州 瞻星臺에 對한 地理的, 觀測的 特性을 調査를 하였다. 朝鮮時代의 代表的인 天文臺는 世宗代의 簡儀臺라 할 수 있다. 이 簡儀臺의 遺蹟이 現在 傳하지 않기 때문에, 文獻을 通해 簡儀臺의 規模와 簡儀를 비롯한 天文儀器의 配置를 推定해 보았다. 또한 朝鮮時代 中期에 小簡儀臺라 불리는 北部 廣化坊 觀象監의 觀天臺와 昌慶宮 觀天臺중, 昌慶宮의 觀天臺에 對한 實測을 하였다. 특히 昌慶宮 觀天臺위의 石臺는 儀器를 設置했던 것으로 보이는 흠이 있어, 當時에 使用했던 觀測儀器의 받침대 크기와 이 石臺를 比較, 檢討하였다. 이밖에 오랫동안 傳해 내려오는 地方의 天文 觀測 場所를 踏査하여 天文臺의 時代的, 地理的 特性, 그리고 觀測活動과 觀測에 使用한 儀器와의 相互 關聯性을 提示하고자 한다.